

화합과 단결 통한 플라스틱업계 구심점 역할 회원업체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연합회가 될 터



신진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1. 한프연합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프연합회)는 지난 6월 3일 플라스틱과 합성수지공업의 양대 산맥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단체입니다.

2. 플라스틱(조)과 합성수지(연)의 합병배경 추진과정은?

▶지난 4년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양분되어 전체 플라스틱업계의 결속력이 약화돼 정부의 보호, 지원육성책인 단체수의 계약물품 지정 제외 등 수요 창출감소로 업계가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플라스틱산업계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명실상부한 조합원을 위한 연합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 공감대 형성하고 합병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 연합회의 추진과정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갖고 가칭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합병결의를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5일 합병계약서 작성 및 서명을 시작으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2월 20일,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합병설립위원 7인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설립위원회는 3월 14일 1차, 3월 20일 2차, 4월 16일 3차회의를 개최하고 합병추진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4월 19일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조합?연합회

명의 합병협의 신청서를 제출해 합병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4월 30일에는 합병연합회 등기 신청이 완료돼 모든 합병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 합병결의 반대의 일부의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플라스틱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합회 체제로의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에 동감해 이에 6월 3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3. 한프연합회 초대 회장으로서의 운영방안은?

▶무엇보다도 플라스틱업계의 중심점으로서 화합과 단결을 기본으로 회원업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의 내실화와 안정을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장치산업과 첨단산업으로서 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지향적 연합회로써 모든 회원들의 편안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열린 연합회가 되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4. 연합회의 조직 구성은?

▶연합회는 현재 관리본부, 사업본부, 기획실, 시험원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35명의 임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울산·경남, 대전·충남, 전북, 제주, 충북 PE관 등 10개 조합 회원사와 회원조합원업체 800여사가 가입돼있으며 PE관, PE필름, FRP제품, PE제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5. 한프연합회의 주요 역점사업은?

▶플라스틱 업계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정보화 기반 및 DB구축, 산업기술 로드맵(공동화 사업)

작성, 플라스틱 원재료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 활성화, 회원업체 생산제품의 신규수요 창출 및 판로모색, 플라스틱제품의 품질향상과 엄격한 관리를 위해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인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을 통해 플라스틱과 관련된 각종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온 우수한 단체표준제품(PL마크)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 貸付(어음할인 포함) 또는 貸付알선과 조합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은?

▶지난 2002년에는 1,100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200억원, 2004년에는 2,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단체수계약 및 공동사업 등으로 약 1,100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2003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작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광폭필름의 연합회 사업추가로 약 2,300여억원의 사업실적이 기대됩니다. ☎

권해진 기자